

삼성, '갤럭시 크루 2026' 운영...SNS로 갤럭시 제품·AI 알린다

등록 2026.01.13 08:39:37



9일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갤럭시 크루 2026' 발대식. (사진=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삼성전자가 소셜미디어(SNS)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갤럭시 제품과 갤럭시 AI 기능 활용 노하우 소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9일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콘텐츠 크리에이터 '갤럭시 크루 2026'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갤럭시 크루 2026은 운동·패션·게임·뷰티·댄스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크리에이터 70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약 1년이다.

갤럭시 크루는 각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갤럭시 제품 사용 경험과 활용 노하우를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갤럭시 AI 기능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모습을 102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SNS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크루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최신 갤럭시 모바일 제품 증정 ▲제품 공개 행사 초청 ▲공연·전시 등 참여 기회 제공 ▲삼성전자와 SNS 콘텐츠 협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크루가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갤럭시 제품과 AI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갤럭시 크루는 2024년 20여명, 2025년 60여명 규모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더 많은 갤럭시 팬들과 소통하고 갤럭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갤럭시 크루 2026을 공식 운영하기로 했다.

2025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갤럭시 크루는 약 4000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고 누적 조회수 9000만회, 댓글 11만개를 기록했다. 또 활동 기간 갤럭시 크루들의 팔로워 수도 16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삼성전자와 갤럭시 크루가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장소연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크루 활동은 갤럭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만의 언어와 감각으로 갤럭시 경험을 함께하는 팬들의 이야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102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